

■ 가 천계관(天界觀)으로서의 천관(天觀)

View of Heavenly Realm as View of Heaven

연구 개요 및 목적

- **연구배경:**

천관(天觀) 개념의 역사적 전개와 그 변화 양상을 탐구하여 한국 종교사상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

- **비교대상:**

동학사상에서 나타난 초월천(超越天)의 개념과 대순사상에서의 구천(九天) 및 천계관(天界觀)

- **핵심 연구 질문:**

- 초월천의 개입 방식과 상제 인신강세 현상의 의미론적 차이는 무엇인가?
- 두 사상에서 나타난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 양상은 무엇이며 그 의의는
- ? 삼계관(三界觀)으로서의 천계관이 갖는 독특한 특징과 현대적 함의는 ?

-

- **연구 방법:**

원전 문헌 분석을 통한 개념 비교, 사상사적 맥락 내에서의 위치 고찰, 근대성 비판 관점에서의 해석학적 접근

동학사상의 초월천(超越天) 개념

- **초월천의 인세 최초 출현**

동학사상에서 초월천은 최초로 인세에 출현하여 천관지관인간관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인간과 초월천의 관계 변화**

인간은 이제 초월천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존재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이것은 유교적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념과는 구별되는 소통 방식으로, 인간이 천명(天命)의 단순한 수용자에서 대화자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 **한계점: 의사소통이해의 미달**

그러나 초월천의 출현만으로는 인간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직접 강세하지 않은 초월천의 한계가 대순사상의 인신강세로 극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조화가 거기운데 있느니라."

- 동경대전 -

동학 천관의 주요 특징

- ◆ 천지가 귀신이고 귀신이 음양으로 소통
- ◆ 상제를 귀신이라 표현하는 실체성 부여
- ◆ 인간과 초월천이 영적으로 연결된 관계 설정
- ◆ 초월천의 출현이 근대적 천관으로 전환의 시작점

대순사상의 구천(九天) 인신강세

- **구천의 의미와 상제의 인신강세**

대순사상에서 초월천은 구천(九天)으로 지칭됩니다. 동학사상에서는 초월천이 인세에 출현하는 데 그쳤다면,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직접 강세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적 출현이 아닌 육체적 현현을 통해 천지 개조의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 합니다.

- **하늘과 땅의 개조**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상제는 인간으로 태어나 아만 인간의 입장에서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스스로 만든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존재로 전환합니다. 이는 '후천개벽'을 통한 전면적 변화를 지향합니다.

- **인신강세의 철학적 배경**

인신강세의 배경은 마테오 라차에 의해 시작된 물질 중심의 사상이 근대성이 초래한 천하진멸의 상황입니다. 대순사상은 서구적 근대성이 야기한 인류 절멸의 위기를 경고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제의 직접적인 강세가 필요했음을 설명 합니다.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습니다."

- 『전경』 [예시] 1 -

동학사상과의 차별성

- ◆ **실체성:** 구천의 인신강세로 초월천이 실체를 가짐
- ◆ **변혁 방식:** 개벽(갱신)이 아닌 개조(재구성)
- ◆ **삼계의 확장:** 천계·지계·인간계의 역동적 상호작용
- ◆ **신명의 작용:** 신명계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화

천지공사와 삼계관의 재구성

-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의미**
구천상제의 인신강세 이후 수행된 천지공사는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개조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갱신이 아닌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서 하늘과 땅의 근본 원리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 **삼계(三界)의 구조적 특성**
대순사상의 삼계는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간계(人間界)로 구분되며, 각 계는 독자적이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유기적 세계를 형성합니다. 이 삼계는 신명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 **재(才)와 계(界)의 차이**
전통 사상의 '삼재(三才)'가 천지인의 세 가지 큰 요소나 재능을 의미한다면, 대순사상의 '삼계(三界)'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내부 세계를 가진 시스템적 개념입니다. 계(界)는 신명계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포함합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 『전경』 『교법』 3-4 -

불교·도교와의 비교

불교의 삼계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로 구성
→ 천계만을 세분화한 개념

도교의 삼계 개념

천(天), 지(地), 수(水)의 삼원(三元) 또는 상계(上界), 중계(中界), 하계(下界) 구분
→ 구체적 체계화 미비

대순사상의 삼계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간계(人間界)를 명확히 구분
→ 신명 시스템 기반 상호작용 강조

신명계의 도입과 천계관의 특징

- **대순사상에서 신명(神明)의 적극적 도입**

대순사상은 동학사상과 달리 신명을 천지공사의 핵심 개념으로 도입하여 삼계의 운행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는 상제의 인신강세를 통해 신명이 인간의 마음에 개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구조화된 신명시스템과 삼계의 관계**

대순사상의 천계관은 '계(界)'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우 상세한 신명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는 천·지·인 삼재(三才)의 개념을 넘어서, 삼계(三界) 내부에 신명들의 역동적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명관의 재활성화**

동학사상에서 천지(天地)와 신명(神明)을 함께 논하는 것은 송명 이후 유학자들이 회피했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대순사상은 『곡점죽간』에 나타난 고대의 신명관을 재활성화하여 근대적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 『전경』 『교법』 3-4 -

신명 개념의 변화

동학: "천지가 귀신이고 귀신이 음양이라"- 개념적 추상적 표현

대순: 신명이 구체적 실체로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우주적 변화를 주도

대순사상 천계관의 특징

- 불교 삼계(욕계, 색계, 무색계)와 달리 천계·지계·인간계를 포괄
- 천계, 지계, 인간계가 동시에 역동적으로 변화
- 마테오 리치로부터 초래된 근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천계관 제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 비교

비교 항목	동학사상의 천관	대순사상의 천관
초월천의 표현	인세에 출현 하여 주문과 의례를 통해 소통	인신강세를 통한 직접적 현현과 천지공사
천-인 관계	인간이 초월천과 의사소통하는 존재로 지위 격상	구천이 인간으로 강세함으로써 천-인 경계의 실질적 소멸
신명(神明) 개념	"천지가 귀신이고 귀신이 음양"이라는 개념적 표현	구조화된 신명계 시스템으로 확장, 실체적 신명 작용의 강조
천관의 변화 방향	"다시 개벽"을 통한 갱신 지향	"후천개벽"을 통한 천지의 근본적 개조 추구

주요 차별성

대순사상은 동학사상에서 시작된 천관의 변화를 **상제의 인신강세**를 통해 보다 실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완성하여, 삼계(천계, 지계, 인간계)의 구조적 관계를 재정립함

근대성에 대한 대응

동학사상의 전통에 이어, 대순사상은 마테오 리치로부터 시작된 서양 근대성이 초래한 **물질 중심의 병폐**에 대한 비판적 천관을 통해 동서양 문명의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

결론 및 의의

사상사적 의미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동서양 문명의 충돌 속에서 근대성에 대한 독특한 대응 방식 제시
- 서양 근대성이 초래한 물질 중심 문명의 위기를 천관의 재구성 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
- 기존 유교적 천인합일 사상에서 벗어나 초월천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

현대적 함의

- 물질만능주의가 초래한 현대 문명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사유 제공
- 인간과 자연, 초월적 존재 간의 상생적 관계 모델 제시
-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사상 중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인류 보편의 문제 인식

한국 종교사에서의 의의

- 한국적 상황에서 성-속의 재배치 와 리미널리티 를 통한 독창적 종교사상 형성
- 동학사상에서 시작되어 대순사상에서 완성된 '신명계'를 통한 새로운 우주론 제시
- '삼계관'으로 불교·도교와 차별화된 한국적 천관지관인간관 체계화
- 인간 중심의 코스몰로지(anthropocentricity)로서 독특한 위치 확립

질의응답 (Q&A)

오늘 발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 연락처: example@religion-studies.org
- 추가자료: 본 연구의 전체 논문은 '한국종교학연구' 2025년 여름호에 게재 예정입니다.